



평창올림픽 대비 모의고사 앞둔 쇼트트랙 대표팀 미디어데이

월드컵 4차 대회 “좋은 기억 남기겠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경기장에서 올림픽을 1년개월여 앞두고 '모의고사'를 치르는 쇼트트랙 대표팀이 “좋은 기억을 남기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태(40)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은 14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미디어데이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쇼트트랙이 정말 재미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찾아주시는 관중에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감독은 “여자 대표팀은 지금까지 잘해 온 만큼 다른 나라와 더욱 격차를 벌리는 것이 목표다. 이번 대회가 자신감과 세계 정상을 굳힐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자 대표팀을 지도하는 조재범 코치는

“이번 대회 전략은 특별히 없다. 선수들 각자가 부족한 종목이나 레이스 스타일을 연습하는 과정이어서 이번 대회도 중요하지만 평창올림픽에 맞춰 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은 평창올림픽 결선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에서 좋은 기억을 남기겠다는 각오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둥이’ 심석희(19·한국체대)와 최민정(18·서현고)은 “경기장에 오니 평창올림픽이 다가온 것이 실감이 난다”고 했다.

심석희는 “하릴 때 강릉에서 자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많이 달라지고 많은 준비가 돼 있다”며 “테스트 이벤트를 하다보니 더 실감이 난다”고 전했다.

최민정도 “평창올림픽이 나의 첫 올림픽이다.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것이라 멀게 느껴졌는데 테스트 이벤트를 하면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남자 대표팀의 ‘민형’ 이정수(27·고양시청)는 “테스트 이벤트지만, 평창올림픽이 열릴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며 “평창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많이 배우고 익혀서 돌아와겠다”고 말했다.

최근 상승세를 자랑하는 임경원(22·회성시청)은 “3차 대회에서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좋아지고 있다. 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두기 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회에서 밀거름을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전력이 평준화되면서 고전하고 있는 만큼 남자 대표팀은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시준 막판 한층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각오도 결었다.

이정수는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한국 대표팀이 강했지만, 이후로 변화가 많았다. 전력이 평준화 돼 견제할 상대가 많아졌다. 우리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견제 상대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감독은 “우리 팀도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때보다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매 대회를 치르면서 나아지는 점도 느끼고 있다”며 “대회를 치르면서 발전한다면 우리가 목표한 시기에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를 겸해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는 16~18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펼쳐진다.

김 감독은 “여자 대표팀은 지금까지 잘해 온 만큼 다른 나라와 더욱 격차를 벌리는 것이 목표다. 이번 대회가 자신감과 세계 정상을 굳힐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자 대표팀을 지도하는 조재범 코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 군산시가 2017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건전한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근 체육시설(체육도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단위 수강 형태의 스포츠 강좌에 대해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하며, 초과 사용분은 수혜자 자부담이다.

신청 대상자는 경찰서 추천의 범죄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만 5세~18세 유·청소년(1989년 1월1일~2012년12월31일 출생자)이다.

단,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문화·여행·스포츠관광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achar.or.kr)에 세대주(수급권자) 명의로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카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여야 한다.

신청자에 한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달 초 발송한다. /군산=문정근 기자

김제시

김제시는 저소득가구 유아 및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2017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들이 태권도 검도 합기도 댄스 골프 학원 등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8만원씩 최소 6개월~최대 1년 동안 지원하여 이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업 홈페이지(www.svachar.or.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 체육청소년과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대상자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은 내년 1~2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에버턴에 역전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날이 에버턴에 달미를 잡았다. 아스날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16~2017 EPL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리버풀과의 개막전에서 3-4로 진 이후 14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하던 아스날은 시즌 두 번째 패배를 당했다.

승점 34(10승4무2패)로 선두 첼시(승점 37·12승1무2패)에 3점 뒤진 2위를 유지했다.

아스날은 전반 20분 알렉시스 산체스의 프리킥 골로 포문을 열었다. 산체스가 낮게 깔아찬 공은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돼 골라인을 통과했다.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던 에버턴은 전반 44분 세이머스 콜먼의 헤딩골로 균형을 맞췄다. 콜먼은 아스날 수비수 사이에서 뛰어 올라 정확한 헤딩으로 페트르 체흐의 방어를 뚫었다. 에버턴은 후반 41분 역전골까지 터뜨렸다. 애шли 윌리엄스가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 넣었다.

6경기 만에 승리를 챙긴 에버턴은 승점 28(6승5무5패)으로 7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 우승팀 레스터 시티는 본머스에 0-1로 졌다. 레스터 시티는 승점 18(4승4무8패)으로 14위가 됐다. 최근 7경기 성적은 1승2무4패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울산과 트레이드로 국가대표 수비수 2명 보장

이용·이재성 영입

전북현대포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올 시즌 최악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수비진 보강을 위해 2명 블럭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전북은 14일 국가대표 풀백 이용과 수년간 리그 최고 수비수로 각광받던 이재성을 울산으로 부터 받고 공격수 이종호, 수비수 김창수와 최규백을 내주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이번 시즌 내내 노쇠하고 느려진 수비

진으로 골머리를 썩던 최강희 감독은 수비라인 재정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년 자유선발로 전북 입단을 확정된 울산파대표 김민재(연세대)의 파트너를 찾던 최 감독은 울산 이재성을 잠적코 울산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리그 최고 센터백을 내주는 조건으로 국가대표 공격수 이종호와 이재성의 빈자리를 채울 유망주 센터백 최규백을 원한것으로 알려졌다.

생각보다 울산의 요구사항이 높아지

자 최 감독은 국가대표 풀백 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그러자 울산은 최철순에 밀려 출전하지 못한 김창수를 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이번 트레이드로 인해 훨씬 전력이 강해질 전망이다.

이종호와 김창수는 이미 전북에서 주전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이었고, 시즌 초반 놀라운 활약을 하던 최규백 역시 부상으로 시즌 중반부터는 열외자원으로 분류돼 있던 상태였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